

168.40호

행정명령

뉴욕주의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지역을 포함하는 뉴욕시의 5개 자치구 및 더치스, 나소, 오렌지, 퍼트넘, 록랜드, 서퍽,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재해 비상사태의 선언을 유지함

승객 수십만 명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지하철 탈선 사고, 광범위한 선로 정전, 심각한 운행 중단 사태를 초래하여 온 뉴욕 카운티 소재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을 포함하여 시스템 전반에서 선로, 신호, 스위치, 기타 교통 인프라 등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장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제168호에 따라 뉴욕시의 5개 자치구 및 뉴욕주의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지역으로 통합되는 더치스, 나소, 오렌지, 퍼트넘, 록랜드, 서퍽,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등이 지금까지 재해 지역으로 선언되어 왔기 때문에,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의 철도 및 지하철 시스템 전반에 걸친 선로, 신호, 스위치, 기타 교통 인프라의 지속적인 고장, 목전의 위협이 계속 제기되는 지하철 시스템 등은 뉴욕주의 경제 엔진으로 인정받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통근자 교통 지구(Metropolitan Commuter Transportation District, MCTD)의 사업과 상업 분야뿐만 아니라 통근자, 관광객, 뉴욕 주민들의 건강, 안전, 생계에 막대한 그리고 해로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뉴욕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의 철도 및 지하철 시스템 전반에 걸친 선로, 신호, 스위치, 기타 교통 인프라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암트랙 수리 프로그램(Amtrak Repair Program) 및 기타 수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선로 단선 및 운행 중단은 대중, 건강, 통근자, 여행객, 뉴욕 주민들의 안전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며 현재 펜실베이니아 역과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의 철도 및 지하철 시스템 전체의 상태로 인해 현재 존재하는 교통 재난의 비상사태를 더욱 지속적으로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선로, 신호, 스위치, 기타 교통 인프라의 수리와 이러한 재해 비상사태로 인한 선로 단선 및 운행 중단에 대한 중재를 지원하기 위해 중요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메트로폴리탄 교통청과 그 자회사 및 계열사들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ANDREW M. CUOMO** 본인은 뉴욕주 주지사로서 뉴욕주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된 뉴욕주 재해 비상 상태의 선언을 연장합니다. 행정명령 제168호를 준수하고 행정명령의 모든 관련 조건 및 지시를 연장하고 이에 따라 비상 상태가 선언된 날부터 2020년 10월 1일 목요일까지 행정명령 제168호의 규정에 따른 모든 법률,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의 일시 중지 및 행정명령 제168호의 향후 연장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의 회장 또는 전무 이사만 포함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의 의장 또는 그의 지명자가, 계약, 임대, 면허, 허가 또는 그러한 재해 비상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체결될 수 있는 기타 서면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결정합니다.

2020년 9월 1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